

디지털 전환의 시대 국제기구에서 경험한 또 다른 의미의 개발

- 이름 : 정운성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개발계획 (UNDP) 이스탄불 민간 협력 개발센터 (IICPSD)
- 직위/직급 : Junior Data Science Officer (UNV)
- 지원 경로 :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 근무 기간 : 2020.07 - 2021.12

체험수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정보

대학교 입학 전 배낭여행으로 가본 뉴욕에서 호기심에 유엔본부를 찾아가 봤다. 가이드 투어를 하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다. 여러 해가 지나 20대의 끝에서 뒤돌아보니 신기하게도 그런 막연한 동경심을 가졌던 곳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UNV 파견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 국제기구에 관한 관심을 직업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참여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며 실무역량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경험이었다. 대학 졸업 후 새로운 도시에 큰 여행 가방 하나에 모니터 하나를 가져와 시작했던 인턴십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나고,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이상은 현실과 다름을 몸소 체험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경하던 곳을 처음 출근하며 느꼈던 설렘은 진하게 남아있다.

국제기구에서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본 수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공계열 전공자에게도 국제기구 내에서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고 인턴십과 UNV 프로그램을 통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 사무국과 유엔개발계획에서 만나본 분들은 경우 다양한 국적만큼이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국제관계, 경제학, 개발 협력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조직에서 큰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는 직무를 수행하며 진행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결과물의 일부로서 7만 건이 넘는 유엔개발계획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무와 역량에 대한 트렌드다. 팬데믹 영향이 없던 2019년 이전에도 원격근무로만 진행되는 홈페이지 컨설턴트 공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국제기구 환경도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직무와 역량 또한 2015년을 기준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과정 및 선발절차에 대한 경험

인턴십 지원의 경우 국제기구 인턴십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소개서¹⁾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학부 졸업을 앞둔 지원자에게 높은 직무 관련 역량을 요구하진 않지만 많은 지원서 중에서 눈에 띌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기소개서의 첫 문단을 여행 중 유엔 직원분을 만난 경험으로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인턴십을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커리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채용공고에 올라온 요구사항 중 사용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과 도구를 언급하였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직무와 통계학 전공의 연결점을 강조했다. 준비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함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검토 서비스를 몇 번 찾아가 피드백과 함께 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UNV 지원의 경우 직무 기술서²⁾를 자세히 읽고 언급된 포인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상응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직무 기술서에는 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은 나가려 하는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과거 경험, 전공, 자신의 관심 분야, 이 세 가지 요소가 뭉쳐 잘 조화되는 지원서를 준비하는 데 노력했다. 이에 더불어 선발 과정에서는 관련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인턴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에 녹여내려 했다. 내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이라는 점을 지원 및 면접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하였다. 역량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원서에 적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해결해야 하는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받아 작업했다. 이 과정을 통해 팀에서 필요한 역량과 나의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통부분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 제안하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COVID-19와 시작된 원격근무와 디지털 협업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었고 이는 UNV 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큰 변수가 되었다. 파견지인 터키 현지에서 대유행 및 봉쇄령이 언급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하였다. 매년 독일 본에서 진행되던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안타깝게도 개최되지 못하였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기까지 전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오후에 일과를 시작해 밤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현지 시각과 맞춰 업무를 진행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시작한 원격근무는 곧 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게 컴퓨터와 인터넷만이라는 어리둥절함도 잠시, 원격근무 경험을 통해 일의 필수 요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신뢰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와 이를 위한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수 요소가 없다면 대면 환경이라고 해도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팀에 새롭게 합류해 문화에 적응하는 온보딩 과정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도 시차를 뛰어넘

1) Cover Letter

2) Terms of Reference

어 재택근무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각별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동료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프로젝트 수혜자와 인터뷰 혹은 현장 방문과 같은 대면 활동을 해야 하는 직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데이터 직무는 분명한 이점들이 있었다. 팬데믹 이전에도 유엔사무국 인턴십을 통해 화상회의와 협업 도구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처음 접하고 신기함을 느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이 보편화된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상사분은 터키에서,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프랑스 개발청³⁾, 맥킨지 컨설턴트, 리투아니아 스타트업, 구글 터키 등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미팅을 가질 수 있었다. 팬데믹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디지털 협업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변화하게 될 국제기구의 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같은 이스탄불에 있는 유엔개발계획 유럽-중앙아시아 허브⁴⁾는 현재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개인 사무실을 없애는 공사가 한창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인턴십을 경험한 이후 공공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현안 해결하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UNV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게 된 곳은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국⁵⁾ 아래 새롭게 생긴 이니셔티브다.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발전목표⁶⁾에 기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가 희망하는 커리어 방향과 부합했다. 유엔개발계획 시스템 내에서 작은 기업처럼 활동하며 국가사무소 및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고 발주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개발 사업 및 인도주의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엔개발계획 내외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커뮤니티 솔루션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컴퓨터공학 대학원생, 글로벌 IT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 분야 임원분과 같이 폭넓고 우수한 온라인 기여자들과 협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큰 배움의 기회였다.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중 하나는 기업 주도의 자연재해 재난관리 플랫폼인 Connecting Business Initiative를 위한 자연어처리 기술 적용이었다. 기업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활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재난관리 기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웹 크롤링으로 5만 건 이상의 PDF 파일을 비정형화된 텍스트 형식으로 전환하고, 개체명 인식을 통해 대시보드에 시각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해당 도구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활동하는 각각의 국가별로 어떤 기업이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검색 및 시각화하는 것을 구현하였

3)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4) Istanbul Regional Hub

5) Bureau for Policy and Programme Support

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다. 해당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솔루션 개발에 대한 재미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기술을 통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사이서 기대치를 조절하는 균형이 필요했다.

유엔개발계획 채용공고 7만 건 분석 결과

2007년부터 약 15년간 생긴 유엔개발계획 채용공고 7만 건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다.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온톨로지 구축으로 시작해 개체명 인식 및 문서 간 유사도 측정 방식을 통해 채용공고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보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직무 및 역량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남아시아 및 서하라 이남 지역의 공고의 숫자가 가장 빠른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홈페이지 공고들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유엔개발계획에서 열린 공고의 약 78%가 국제 및 로컬 컨설턴트이었으니 전문성, 역량 및 성공사례를 갖춘 이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많은 팀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보았을 때 2015년 전후를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는 새천년개발목표⁷⁾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⁸⁾ 중심으로 방향 및 지표가 수정됨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행정 및 모니터링⁹⁾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금융평가¹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채용 공고상 가장 많이 언급된 전공으로는 경제학, 사회과학, 행정, 법학 순서였다.

최근 몇 년간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 문화를 공통된 목적에 접목하려는 디지털 전환이 이슈화되었고 국제기구 내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여러 부서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엔개발계획에서는 올해 3월 전사 데이터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기구 내에서 데이터 활용은 정보관리¹¹⁾와 같은 관련 직무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관리, 사용,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다. 작년 하반기에 유엔시스템 내의 데이터 커뮤니티인 Secretary-General's Data Strategy for Action이 탄생했고 올해 하반기에만 구성원 수가 150% 증가해 2천 명을 넘어섰다. UNV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통한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7)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8)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9) Monitoring & Evaluation

10) Technical & Financial Evaluation

11) Information Management

맺음말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상태였지만 진출 가이드북 및 체험수기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이미 경험한 이들의 사례를 통해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현재 같은 팀에 있는 독일 및 카자흐스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 진출 간담회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부터 UNV와 JPO와 같이 직접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까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흔하지 않았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많은 이들이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UNV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에도 외교부 담당자분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간담회가 있었고 유엔 한국인 직원 네트워크 또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지속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커리어를 개발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년간의 국제기구의 경험이 더 넓은 시각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직무 경험을 쌓으며 매력적인 도시 뉴욕과 이스탄불에서 20대의 일부분을 보낼 수 있었다. 커리어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직업군들이 있지만,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은 특별했기에 다시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다면 같은 선택을 내릴 것이다. 다만 해당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커리어 초반에는 꼭 국제기구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고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열려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제기구가 목적지가 아닌 과정의 일부라는 표현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한다. 어디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보다 어떠한 직무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통해 지난 시간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해도 마음 한편에는 한국인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일했다는 경험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외교부 담당자분들과 먼저 국제기구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끝/